

새로 나온 책

##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기원

나치 전범에게 적용된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라는 죄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책은 한통의 초대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국제 인권법 학자이자 인권변호사인 필립 샌즈는 우크라이나 리비우 대학으로부터 강연 의뢰를 받는다. 리비우는 샌즈의 외할아버지가 나고 자란 곳이다. 외할아버지는 샌즈에게 리비우에서 겪은 일을 한 번도 이야기해준 적이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필립 샌즈 지음/정철승, 황문주 옮김/더봄

한 법학자 라파엘 렘킨과 허쉬 라우터와 하트도 리비우에서 공부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또 있다. 모두 유대계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삶은 나치 독일의 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조우한다.

책은 ‘2종의 탐정소설’이다. 나치에 점령당한 유럽에서 유대인 외할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삶과 국제인권법의 탄생 과정을 동시에 추적한다.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4·19와 5·16, 유신과 5·18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632쪽. 2만8000원. /김현정 기자 hki@

샌즈의 외할아버지가 태어난 1904년 리비우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속했다. 폴란드 남동부와 우크라이나 북서부에 걸쳐 있어 우크라이나인, 폴란드인, 유대인 등의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다. 도시는 지배자의 언어에 따라 렘베르크, 로보프, 리보프, 리비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리비우에는 약 10만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도시가 20세기 초반 역사의 격류에 휩쓸린 이유다.

리비우는 샌즈 외할아버지의 고향만은 아니었다. 국제법의 중요한 개념인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연구

###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지음/창비



2019년 3월 18일 세월호 투쟁의 상징이었던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와 천막이 철거됐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 지난 5년은 격변의 시간이었다. 책은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한국사회의 심연을 밝히려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담았다.

책은 이제 그만 잊으라는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사건은 종결된 것인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무관한지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392쪽. 1만6000원.

### 거짓말 읽는 법

베틀나 슈탕네트 지음/김희상 옮김/돌베개



가짜뉴스가 범람한다. 표현의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거짓 정보를 생성하고 확장할 기회를 활짝 열어놨다. 저자는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완전하기에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이유는 거짓말쟁이가 100% 거짓말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믿음, 의견, 지식을 뒤섞어 상대방의 생각을 비튼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 이제는 거짓말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256쪽. 1만5000원.

### 아토믹 걸스

드니즈 키어넌 지음/고정아 옮김/알파



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계획을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은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비밀 도시를 만든다. 책은 사이트 X, 클린턴 공병 사업소라고 불린 이곳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삶을 그려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도 모른 채 종전을 바라며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 이들의 이야기는 ABC 방송작가 드니즈 키어넌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 전시의 억압 속에서도 생명력을 뿜어냈던 민중들의 이야기. 528쪽. 2만3500원.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민들레

가고 싶다, 그대 따라서 한없이 이어진 길 매서운 바람도 응원이라 여기며

고흥근 작

## ‘브이로그 전성시대’... 액션캠·풀프레임 등 ‘다양’ 내 일상을 담아줄 카메라는?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SNS 등에 공유하는 브이로그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카메라 업계가 브이로그를 겨냥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카메라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겨냥하는 제품은 크기가 작고 가벼워 들고 다니기 편한 액션캠부터 영상 퀄리티를 강조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다양하다.

14일 카메라 업계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달 브이로그용 카메라 신제품 ‘RX0 II(DSC-RX0M2)’를 공개했다. 셀카 촬영이 가능한 플립 LCD를 장착해 편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RX0 II는 IP68 등급의 방수·방진, 2m 높이의 낙하 충격 및 20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내구성에 4K 동영상 촬영 기능, 영상 촬영용 손떨림 보정 솔루션을 갖췄다. 180도 플립 LCD는 수중 촬영도 가능하다. 가로 5.9cm, 세로 4.05cm 크기에 무게는 132g이다.

대표적인 액션캠 브랜드 고프로는 지난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시리즈 한정판 ‘히어로7 블랙 더스크 화이트’에 디전을 공개했다. 국내에서 5000대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한정판은 더스크 화이트 색상으로 기존 히어로7 블랙이 가진 하이퍼스무스, 타임워프, 슈퍼포토,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기능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제품이다. 히어로7 블랙은 가로 6.2cm, 세로 4.4cm의 크기에 무게는 116g에 불과하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도 브이로그를 공략하고 있다. 액션캠에 비해서는 무게가 훨씬 무겁지만 카메라 업체는 영상의 퀄리티를 강조하고 있다. 4K 촬영, 저소음 작동, 영상편집에 유리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Z 시리즈’를 활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모습. /니콘

- 소니 브이로그용 ‘RX0 II’ 플립 LCD 장착해 셀카촬영 용이
- 고프로 ‘히어로7블랙’ 타임워프 기능에 가벼운 보디감
- 니콘 풀프레임미러리스 ‘Z 6’ 4K UHD 촬영 지원·넓은 화각
- 캐논 DSLR ‘EOS 200D II’ 5축 손떨림 방지·초경량

한 로그 촬영 지원 등을 탑재한 신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그중 니콘은 ‘Z 6’을 영상 촬영에 적합한 제품으로 강조한다. Z 6은 동영상 촬영 시 AF(자동 초점) 속도와 AF 추적 감도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 영상 표현의 폭이 넓고, 이미지 센서 전체 영역을 활용한 풀프레임 4K UHD 동영상 제작을 지원해 렌즈 화각을 최대한으로 살린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5단의 손떨림 보정 효과를 적용했고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로우 데이트 파일로 영상 출력이 가능해져 후보정 작업에서 자유로운 색감 보정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캐논도 최근 초경량 DSLR 카메라 ‘EOS 200D II’를 발표했다.

EOS 200D II는 최대 4K 24P의 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시간의 흐름을 담은 ‘4K 타임랩스 동영상’ 기능을 지원해 고화질 동영상 촬영을 위한 성능이 대폭 강화됐다. 5축 손떨림 방지를 지원하는 ‘동영상 디지털 IS’ 기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 촬영 환경을 제공하며, 흔들림이 억제된 선명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

1인 미디어용 영상촬영장비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전망된다. 지난달 14일 G마켓이 한 주 동안 876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인 방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35%)이 현재 1인 방송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거나, 앞으로 크리에이터가 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G마켓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카메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다. 그중에서도 DSLR 카메라는 11배 이상(1083%) 판매가 증가했으며, 미러리스(39%)와 액션캠(98%), 캠코더(76%) 등도 모두 높은 판매 성장세를 기록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소믈리에가 선정한 250여 종 와인 만나보세요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3컨벤션센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운영하는 63컨벤션센터에서는 소믈리에가 직접 선정한 250여종의 와인을 최대 60% 할인가로 즐길 수 있는 ‘와인 마켓 플레이스 시즌 11’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단 3일간 진행되는 와인 마켓 플레이스는 ‘한강을 배경으로 즐기는 봄 미식 축제’를 콘셉트로, 각국의 엄선된 와인인과 셰프가 직접 구성한 디너 뷔페를 63컨벤션센터

의 프라이빗 야외 테라스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믈리에가 직접 선정한 와인 250여종을 최대 60%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합리적인 가격에 봄꽃이 만개한 한강의 정취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와인 마켓 플레이스’는 매회 전석 조기 매진을 기록하는 등 여의도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소믈리에가 선별한 추천 와인 리스트를 제공해 무료 시음을 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롯데호텔팜 태교여행 패키지 ‘베이비문 파라다이스’

롯데호텔팜이 태교여행 전용 패키지 ‘베이비문 파라다이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섬 전체가 면세구역이라 가격대가 높은 유아용품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휴양, 관광, 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오는 12월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베이비문 파라다이스 패키지’는 광의

대표적인 해변인 투몬비치(Tumon Beach)가 한눈에 들어오는 객실인 오션뷰 객실 투숙, 조식 2인, 더 라운지&텔리의 생과일 주스 2잔 이용권 1매, 젤리 컷 애착인형 1개와 더불어 광 인기 유아복 쇼핑 플레이스인 ‘메이시스(Macy’s)’의 미화 10달러 기프트카드 2개로 구성된다. 패키지는 3박 이상 투숙 시에만 예약이 가능하다. /김민서 기자

### 롯데면세점

## 단체관광 1600명 유치

입국 후 롯데면세점으로 단독 입점

롯데면세점이 2017년 6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단체관광객 1600여 명을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으로 유치했다.

14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일본의 통신관련 기업 ‘월드이노베이션리브 올’ 임직원 1600여 명이 회사에서 포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 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단체는 13일 800여명과 15일 800여명, 총 2회로 나눠 롯데면세점에 단독 입점하며, 총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관광한다. 롯데면세점의 일본인 매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이처럼 대형 인센티브 단체가 방문한 것은 근 2년 만에 처음이다.

1차로 입국한 임직원 800여 명은 13일 오전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입점하여 쇼핑을 즐겼다. 이들은 면세점에서 일본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국산 화장품과 국내 토산 브랜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